대전엑스포 '93(8)

1. 엑스포 전시관을 찾아서

—상설 전시구역

박람회장 상설 전시구역에 자리잡은 국내 전시관은 모두 15개나 된다. 서문 주차장을 통해 들어오는 관람객들은 이 전시구역부터 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각 전시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전시 기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만 소개하기로 한다.

'정보통신관'에서는 특수 연출 기법에 의한 라이드 쇼를 보여 준다. 관람객들은 155대의 궤도 차량에 나눠 타고 405미터의 궤도를 천천히 돌면서 양쪽 무대에 설치된 통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된다. 모두 9막 48장면이다.

'자연생명관'에서는 관람객들이 두 개(A+B)의 극장 중 하나를 골라서 관람한 후 객석이 180도 회전하여 반대쪽에서 한 개의 극장으로 합쳐진 후 70미리 대형 영상물을 동시에 보게 된다.

'우주탐험관'에서는 세계 최대의 60인승 우주선을 타고 1미터 70센티의 높이에서 상하좌우로 20도씩 기울어지면서 실감나는 우주 탐험을 하게 된다.

'자동차관'에서는 승용차 시뮬레이터에 탑승, 초스피드로 달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전기에너지관'에서는 유리로 된 바닥 아래 특수 조명을 이용한 빛의 세계와 미래 도시의 모습이 펼쳐진다.

'테크노피아관'에서는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서 보는 영상물인 테크노피아로의 여행이 스릴 속에서 전개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상 현실'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

'이미지네이션관'은 세계 최대의 옴니맥스 돔 극장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금성, 목성, 토성의 모습 등이 관객을 압도한다.

'소재관'에서는 소재의 분자 구조까지 보여주는 입체 영화가 선명하고 실감나게 펼쳐지며, 탄소섬유, 형상기억합금 등 신소재의 실물을 관람하게 된다.

'미래항공관'에서는 360도 원형극장에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된다.

'자기부상열차관'에서는 차세대 꿈의 열차인 자기부상열차를 직접 무임 승차할 수가 있다.

'인간과 과학관'은 아이맥스 3-D의 입체 영상으로 인간 두뇌 활동의 신비를 보여 준다.

'지구관'에서는 63빌딩 아이맥스 영화의 1.8배나 되는 세계 최대의 아이맥스 영화로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자원활용관'은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 에너지 전시관으로서 전시관 지붕에 태양전지를 설치,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한다.

'재생조형관'은 세계 각국의 빈 병 5만개를 세운 건물로 전시관 안에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펼쳐진다.

'재활용 온실'에서는 박람회장의 식당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비료나 사료로 만들어서 채소와 물고기 등을 기른다.

위에 예로 든 것 외에도 관람객들은 수많은 전시물을 관람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국제 전시구역

국제 전시구역엔 엑스포 사상 가장 많은 참가국을 기록한 109개국의 전시관과 33개의 국제기구 전시관, 그리고 11개의 국내 전시관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박람회장의 동문이나 남문을 통해 들어오는 관람객들은 이 전시 구역부터 관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관'은 A구역, B구역, C구역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B구역은 평화 우정관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전시관이다.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의 예를 들어 본다.

'미국관'에서는 우주 항공선에서 찍은 지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 주고, 기후 위성이 한반도를 지날 때 기상 상태를 생중계하기도 하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우주 비행사의 전송 장면이 전시관 리시버에 직접 전달되기도 한다.

'독일관'에서는 에어버스, 고속 전철 기관차 조종석, 레이저 용접 로봇 등을 선보인다. '러시아관'에서는 우주정거장, 잠수 로봇 항해 시스템 등을 보여 주고 '오스트리아관'에서는 디지탈 백과사전과 전자방명록 등을, '캐나다관'에서는 이동 극장, '중국관'에서는 귀환 위성 착륙 캡슐 및 모형 로켓 발사 시범 등을 보여주고, '일본관'에서는 컴퓨터에 의해 꽃이 피고 지는 형상기억합금 동백꽃 화원을 보여 준다.

환경 보전 관련 전시로는 '영국관'에서 환경 연구 영상물을, '프랑스관'에서 자원 보호와 도시 공해 감소 대책을 제시하는 영상물을, '독일관'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 재생 기계를 선보인다. 그리고 '미국관'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생하는 기계를, '오스트리아관'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환경극장을, '스위스관'에서는 깨지기 쉬우나 적응력이 있는 자연 생태계를 상징하는 거미집을 보여 준다.

국내 전시관으로서 '정부관'은 대전엑스포의 주제관답게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자연과 호랑이, 다람쥐 농부 등의 동작 모형을 활용,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 준다.

상징탑인 '한빛탑'에서는 39미터 높이의 고리형 전망대에 오를 때까지 우주의 영롱한 모습과 빛의 연출을 보여주고, 전망대에 오르면 박람회장 전체를 볼 수가 있다.

'대전관'에서는 미래의 지상 도시, 지하 도시, 해저 도시, 우주 도시 등을 보여주고 '시도관'에서는 14개 시·도의 미래상을, '주거환경관'에서는 특수 무대 장치와 실물로봇 등으로 쾌적한 미래 주거 환경을 보여 준다.

'조폐문화관'에서는 세계 지도 그래픽으로 세계의 화폐를 연출하고 '롯데 환타지 월드'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상과 신비의 워터쇼를, '도약관'에서는 6개의 중견기업이 각각 전시관을 만들어 다양한 연출을 한다. '한국후지쯔관'에선 뉴로 컴퓨터 쇼를 '한국아이비엠관'에서는 구형 입체 스크린을, '번영관'에서는 포스트 모던 영상물을 선보인다.

2. 문화예술 이벤트

① 기다리며 즐기는 축제

한 전시관에서 상영하는 20여 분의 영상물을 보기 위해 2~3시간씩 전시관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한다면 어떨까?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무엇인가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차례를 기다리며 시간을 버리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럴때에도 엑스포 회장에는 볼 만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전시관을 찾아 이동중일 때나 차례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공연에는 '퍼레이드' '거리의 볼거리' '장기자랑' 등이 있다.

엑스포의 꽃－'퍼레이드'

대전엑스포의 주제인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퍼레이드'를 들 수 있다. 퍼레이드는 '움직이는 이벤트'로 일컬어지거니와 대전 엑스포 퍼레이드도 움직이는 전시, 공연, 음악, 미술, 의상, 특수효과 등 각종 이벤트를 망라할 예정이다.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씩 국제전시구역에서 약 1,500m에 이르는 거리를 진행하며 공연한다.

퍼레이드는 무용단을 포함한 공연팀, 악대와 기수단, 연기자 등 참가인원 250여명과 전기자동차로 만든 장식차량인 플로트 12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구성된 퍼레이드는 박람회장 전체를 공연 공간으로 삼아 첨단기술의 신기함,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 등을 보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악과 음향효과도 치밀하게 구성하였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박람회장내 거리 요소마다 설치된 스피커에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각 플로트의 주제 음악과, 연기자나 특수소품이 내는 음향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연주시간을 조정하였다.

퍼레이드는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들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즉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관람객이 퍼레이드 행렬을 따라 회장의 중앙인 축제의 거리로 모이게 되므로 원활한 동선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휴식시간도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의 볼거리'

'거리의 볼거리'란 개방된 장소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짧은 문화 예술적 행위인 스트리트 퍼포먼스를 엑스포 문화행사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 정서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이다. '거리의 볼거리'는 지정된 거리나 박람회장 전체를 무대로 삼아 박람회 전기간에 걸쳐 국내외 20여개 팀이 출연하여 1,395회를 공연한다.

국내 출연 종목 중 풍선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동물형태를 만들어 관람객에게 주는 풍선클라운, 관람객의 얼굴에 코믹한 그림을 그려주는 얼굴 페인팅, 걸어다니는 1인 인형극장 등은 꼬마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공이나 고리, 횃불 등을 공중에 던지며 묘기를 펼치는 자글링, 음악에 맞춰 능숙하게 타는 외발 자전거, 인간의 균형감각에 도전하며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몸동작을 보여줄 아크로바트 등이 벌어지는 미니 서커스와 첨단기술로 놀라운 매직쇼를 펼칠 마술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구경거리 외에 우리 고유의 놀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그램도 많다.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택견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코믹 마술쇼, 농악, 대접이나 대야를 막대·담뱃대·칼 등으로 돌리는 버나(접시 돌리기), 현대의 덤블링과 비슷한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재담·음악·춤사위 등이 혼합된 민속극인 덧뵈기(탈놀음), 덜미(인형극) 등이 그것이다. 특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리드미컬한 가위질과 걸쭉한 재담을 섞어가며 관람객에게 엿을 나누어 줄 엿장수, 무대극인 품바타령을 엑스포 현장으로 끌어낸 '품바' 등은 우리의 옛 정취와 풍류를 물씬 풍겨줄 것이다.

한편 국외 출연 종목에는 서커스에 쇼의 요소를 가미한 보드빌 쇼, 여러가지 악기를 혼자서 동시에 연주하며 걸어다니는 원맨 밴드 등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기상천외한 해외의 유명 출연자들도 대거 출연하여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빠른 가위놀림으로 순식간에 달팽이·사자·꽃 등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내는 종이예술, 기(氣)를 이용하여 수 미터 거리의 촛불을 끄는 기공(氣功), 미술·음악·육체적 표현 등을 표현 행위로 삼으며 언제나 새로움과 놀라움을 연출하는 행위예술 등은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다.

3. 충청권 관광코스

올해의 가장 큰 국가적 행사로 치러질 대전엑스포는 과학기술의 축제라는 의미말고도 '한국 방문의 해'의 전초적 성격을 띤 관광축제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찾아보는 대전엑스포의 본거지 충청권은 가족 나들이 길의 즐거움과 의의를 더한층 배가시키게 될 것이다.

충청권의 볼 곳과 즐길 곳들은 모두 엑스포가 치러지는 대전으로부터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유치하고 있으며, 역사여행과 건강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유성온천, 계룡산 및 동학사, 대청호 등은 많이 알려져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유성온천과 인접한 지역은 전국 관광권역에서 중부권에 속한다. 공주, 부여권과 천안시의 독립기념관, 속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으로 다른 관광지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전권내는 물론 충청도내의 관광자원이 분산되어 있고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관광 흡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적엑스포는 중부권 관광자원 개발에 둘도 없는 기회이다.

1989년의 경우 대전은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관광객 수의 13.8%, 관광수입의 17.3%였으나 1990년 상반기 각각 6%, 9%씩 떨어졌다. 대전이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목적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전지역을 관광지를 보면 대덕연구단지, 회폐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유성온천, 대청댐, 보문산 등이 있다.

충남권은 천안에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공주에 무녕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갑사, 동학사, 계룡산이 있다. 부여는 낙화암, 부소산, 고란사, 정림사지 5층석탑 등 백제유적이 있다. 온양은 온천이 유명하며 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예산에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덕산온천이 있으며, 금산에는 칠백의종, 인삼타운, 대둔산 도립공원이 있다.

충북권은 청주에 국립청주박물관, 용두사지, 흥덕사지가 있다. 보은에는 속리산 국립공원, 에밀레박물관이 있으며, 괴산에는 화양구곡, 선유구곡 등 절경이 기다리고 있다.

옥천에는 금강유원지와 장계 국민관광지가 있다. 전북권에서는 전주에 전주팔경, 국립전주박물관, 덕진공원 등이 있다. 이리는 귀금속단지를, 무주는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 등을 가지고 있다. 완주는 대둔산 도립공원, 역사가 오래된 송광사가 있다. 엑스포 관람객들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대전과 인근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지면 안성마춤이다.

이제 대전엑스포의 성공은 관광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숙박업소의 서비스, 대전시민의 친절과 함께 국민들의 평일 관람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

안

'93 해외출원비용보조금 신청접수

내

신청대상 : 1992. 9. 1~1993. 8. 31 사이 외국에 출원한 비용의 송금사실이 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신청기관 및 문의처 : 1993. 9. 1~9. 30, 발명진흥부(555-6845)